



## 경인지방통계청, 2023년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개최

- 광역 지자체, 연구원, 학계 등 지역통계 전문가 20여 명 참석
- 경인청과 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추진방안 논의
-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한 수도권 청년통계 개발방안 논의

경인지방통계청(청장 안형준)은 4월 27일(목) 광역 지자체, 연구원, 학계 등 지역통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통계의 발전방향과 통계개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경인지방통계청이 주최하는 협의회로,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금번 회의의 안건은 ‘경인청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 방안’과 ‘수도권 청년통계 개발방안’으로, 협의회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경인청과 시군구 간 협력 증진방안과 청년통계등록부 등을 활용한 청년통계 개발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형준 경인지방통계청장은 “수도권 지역통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161종의 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시군구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청의 청년통계등록부 제공 및 활용으로 청년통계 개발 여건이 향상되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군구 협력사업과 청년통계 개발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붙임) ‘2023년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사진(별도 송부)

담당 부서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박시내 (02-2110-7760)
		담당자	사무관	노진배 (02-2110-7768)